



입력 2013.05.04 08:18

인쇄하기

취소

전주대, 협동번역사업 '준대형연구소' 선정

부속기관인 한국고전학연구소...30년간 100억원 지원 받아

전주대학교는 4일 한국고전학연구소가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준대형연구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시작된 협동번역사업은 권역별로 나눠 해당 지역 조선시대 한문문집을 향후 30년 동안 번역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출판비 등 일체를 지원한다.

교육부가 고전번역 사업비로 30년간 약 100억을 지원하게 된다고 전주대 측은 밝혔다.

현재 준대형연구소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한국고전문학연구원 컨소시엄)와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등 2곳뿐이다.

전주대 부속기관인 연구소는 '준대형연구소' 선정에 앞서 (사)한국고전문학연구원과 협력해 호남권 중형거점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다.

연구소는 올해 조선시대 심문·재판기록인 추안급국안 번역본 100권을 출판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과 '추안급국안 원문 입력 및 DB기반 구축 사업단',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조선시대 경상도 연안 및 도서(島嶼)관련 자료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